

# 폐석산 불법 폐기물 상반기 내 처리

### 익산시, 오염폐기물 20만 6000톤 · 침출수 등... 6월 말까지 이적 완료 계획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에 매립된 오염폐기물 20만 6,000여 톤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적 처리한다고 밝혔다. 낭산면 폐석산 환경오염은 2016년 처음 적발됐다. 시는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섰고, 당시 폐석산 사업주와 폐기물 배출업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처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처리가 제때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오염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1년 4만 9,000톤, 2022년 5만 4,000톤 등 모두 10만 3,000톤에 대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했다. 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속한 조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성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주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염폐기물 중 적정 처리 물량이 산출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해 논의의 끝에 지난해 9월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



양영진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와 전북자치도 주민대책위원회는 물론, 폐기물 배출업체로 구성된 복구협의체도 참여해 의지를 다졌다. 현재까지 시는 목표 처리 물량인 20만 6,000톤 중 5만 4,000톤에 대한 이적을 마쳤다. 차후 복구협의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나머지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침출수 발생 억제를 위한 우수매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양영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의 결과"이며 "여기에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복구협의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최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장점마을,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5년 준공

익산시 장점마을이 깊은 상처를 딛고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익산시는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으며, 상반기 내로 환경오염이 발생한 비료공장의 건축물 일부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57억원을 들여 합라면 신목리 장점마을 일원의 자연 생태계를 잇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환경 복원사업이다. 동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은 2017년 마을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신청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마을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비료 공장 '금강농산'이 발암물질 등을 대기로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피해 회복에 나선 시는 사고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마을주민복지센터·보건진료소 건립 △태양광 시설 보급 △가구별 LPG 설치 등 167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후 대책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암 발생 피해자들에게 보상 위로금 5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주민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 복구 마무리 차원에서 실시되는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과거를 잊지는 않되, 자연 생태계 복원을 통해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마을 인근에 수리부영이와 황

조룡이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주변 생태조사를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생태놀이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치유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비료공장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제거 등 부지 정리에 나선다. 복원사업 준공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다. 양영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문제가 된 비료 공장을 활용할 방안과 생태환경 교육 공간 조성 등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모두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며 "친환경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는 차별화된 생태 명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 “그날의 합성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 군산시,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성공적 개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및 3·5만세 재현행사가 지난 1일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일원에서 열렸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 3·1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의 첫 장을 여는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3·5만세 행렬이 재현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강 아남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군산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375만세 행렬은 구암교회를 시작으로 마루 앞 그리고 다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까지 이어졌다. 이외에도 조국 독립의 염원과 애환을 담은 '그날이 오면' 시 낭송 및 퍼

포먼스가 개최되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또한 3월 한 달 동안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3월 30일 토요일 10시에는 군산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371절 기념 백일장 및 미술대회가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광장에서 개최된다. 군산 3·1운동 선교기념 타워에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3·1운동 역사전편을 만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구국열명의 거사인 3·5만세 재현행사를 통해 군산 시민이 하나가 되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다시 우뚝 서는 군산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개최

익산시가 지난 1일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3·1 만세운동 참여자 유족과 광복회원, 보훈단체, 지역 기관장, 학생, 군인,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 '그날의 용기'는 일제 강점기 시대 나라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난 애끓는 조국애를 무용으로 표현했다. 조국 독립을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이 더해지며 삼일절의 의미를 다

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선창에 따른 만세삼창 순서로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역사를 잇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국난 극복을 위해 선조들이 일찌감치 일어난 고귀한 정신을 기린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해 역사 문화가 숨 쉬는 익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상임위별 현장의정활동 나서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는 지난 29일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주요 사업지 점검을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벌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현장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서동생가터 조성사업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경관 브리지 조성으로 신흥공원 방문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며,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은 미륵사지석탑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왕궁 등 익산의 핵심유적 정비를 통해 거점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날 기획행정위원들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추진 배경과 현장 현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발굴에 힘을 줄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장애나눔길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일원에 추진 중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여성사회대학 상반기 수강생 모집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은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월 4일부터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교육(패션연출양재 등 4개), 정보화 교육(PPT와 미러캔버스 등 4개), 생활 문화(생활잡화요리 등 4개), 교양 교육(보내디칼아트와 색연필화 등 18개), 아간 교육(통기타초급 등 3개) 분야별 33개 강좌가 진행된다. 특히, 여성사회대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배움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챗GPT 과정 신설 및 체육 프로그램 등 신규 9개 강좌를 개설해 선보일 예정이다. 수강료는 주 1회 2시간 15주 과정에 3만1천원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자부담으로 운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4월 군산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정도 늘어난 168억원, 지원 물량은 813대로 이 중 승용차는 469대, 화물차는 344대이다. 민약 상반기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다. 보조금을 받길 희망하는 구매자는 3월 4일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